

열려진 사립문을 지척에 두시고

항일혈전의 나날 언제 한번 잊으신적 없는 그토록 그리운 고향이건만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열려진 사립문을 지척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먼저 찾으시였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장군님의 높이신 그 뜻을 길이길이 노래하라
만경대갈림길이어라고 흙모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충성의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강선길은 인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일으키시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려 걸으신 위대한 애국애민의
길이였다.